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을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녘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距離)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내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첫 고향의 꽃밭에 마즈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 간다 목이 빠삭 말라 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

벽,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날으면 아방(我方)\*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이런 마즈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설픈 표시의 벽. 기(旗)여……

- 박봉우, 「나비와 철조망」

\*아방: 우리 쪽.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그리고 있다. ‘나비’는 분단의 현실로 고통받으면서도 통일과 평화의 꿈을 버리지 못한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철조망’은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상징한다. 이 작품은 대립되는 성격의 시어들을 바탕으로 분단의 현실을 비판하고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 1연: 해 질 무렵 지친 날개로 날고 있는 나비
- 2연: 꽃밭을 바라며 날고 있는, 상처 입은 나비
- 3연: 적지를 고통스럽게 날고 있는 나비
- 4연: 벽을 느끼면서도 계속 날고 있는 나비
- 5연: 꽃밭을 그리며 날고 있는 나비

✓ 주제 : 민족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열망

- ① 이 작품에서는 ‘나비’가 시적 대상이지만, 부분적으로 나비의 시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 이는 독자가 나비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보고 느끼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② 1연에서 나비가 보고 있는 ‘시푸런 강과 또 산’은 나비가 가고자 하는 세상에 도달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
- ③ 1연에서 나비가 바라보는 ‘장밋빛 무늬’는 노을을 표현한 것으로, 아직 원하는 공간에 도달하지 못한 채 하루가 저물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 ④ 3연에서 나비가 더 날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 ‘마일’’은 나비가 도달해야 할 아방의 철조망까지의 거리를 뜻한다고 볼 수 있어.
- ⑤ 3연에서 나비가 ‘바람’이 자꾸 분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나비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 ⑥ 5연에서 나비가 ‘벽’을 어설피다고 여기는 것은 나비가 ‘벽’을 언젠가는 넘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 ⑦ 이 작품은 특정 공간을 통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한 통렬한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상처 입은 나비가 아픈 상처를 딛고 결국 철조망을 넘으려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나비를 통해 어떤 시련 속에서도 분단과 대치의 상황을 끝내고 마침내 통일과 평화를 맞이하겠다는 강한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 ⑧ ‘생채기’를 입은 ‘나비 한 마리’가 ‘첫 고향의 꽃밭에 마즈막까지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단과 대치의 상황이 종식된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⑨ ‘모진 바람이’ 불고 ‘벽, 벽……’에 부딪치면서도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로군.

**[ T H E - 깊 은 독 해 ]**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을 벌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 해당 문장의 주제는 누구일까? 아마 제목의 '나비'일 것이다. 나비는 강과 산을 넘어야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나비의 입장이 직접 제시되어 있다. 이때 '시푸런 강과 또 산'은 나비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

서녘 하늘은 장미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 여기서 '장미빛 무늬'는 저녁노을을, '큰 눈의 창'은 해를 비유한 말이다. 즉, 서쪽 하늘 저녁노을 해가 붉게 물들어 있는 상황이다.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 (저녁 하늘은) 나비의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나비는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가슴이 타는 듯이 초조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1연 : 해질녘 지친 날개로 날아가는 나비

모진 바람이 분다.

→ '바람'이 모질다는 것을 보아 이때의 바람은 부정적인 대상으로, 고난과 시련 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 시적 대상('나비 한 마리')가 제시되었다. '생채기'라는 표현을 통해 나비가 상처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나비 한 마리'는 분단의 상처를 입은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생채기'는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첫 고향의 꽃밭에 마즈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람의 향기였다.

→ (상처 입은 나비의 비행은) 평화로운 시절('첫 고향의 꽃밭')을 기억하며 힘을 내려는 강렬한 소망의 표현이라는 뜻이다. '첫 고향의 꽃밭'은 나비가 지향하는 세계로, 과거에 사람과 평화가 넘쳤던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바람의 향기'는 강렬한 소망한다는 뜻으로, 소망을 후각적 이미지인 향기에 빚은 표현이다.

▶2연 : 꽃밭을 떠올리며 날아가는 상처 입은 나비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 해당 부분의 서설은 나비의 입장이 직접 제시되어 있는 형태이다. 목적지까지 날아가고자 하는 나비의 의지가 드러난다. '몇 '마일''은 나비가 날아야 할 거리에 해당한다.

이미 그 날개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 목이 바싹 말라 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敵地).

→ 나비가 시련을 겪으며, 아직도 냉혹한 적의 땅을 날고 있는 상황이다. '싸늘한 적지'는 긴장된 분단의 현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남북 대립의 긴장 상황 등을 의미할 것이다.

▶3연 : 시련을 겪으며 적의 땅을 날고있는 나비

벽, 벽……

→ 나비가 장애물인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때 '벽'은 분단 상황을 상징한다. 말줄임표의 사용으로 벽의 존재로 인한 안타까움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 나비가 장애물에 부딪혔지만 날아야만 했던 상황이다.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날으면 아방(我方)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은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쉽게 말했을 때,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가 동시에 존재하면 역설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목적지에 도착하므로 따스하지만, 여전히 분단 상태이므로 슬프다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철조망'은 '벽'과 문맥상 동의어로, 분단 상황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4연 : 벽이 있음을 알고도 계속 날아가는 나비

이런 마즈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마즈막 꽃밭'은 나비의 목적지로, 분단을 극복한 화해와 통일의 세계를 의미한다. '숨은 끝나지 않았다'는 표현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꽃밭에 반드시 도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어설(슬)픈 표시의 벽.

→ 나비 앞의 장애물은 영성하고 허술한 대상뿐이라는 의미이다. 이 '어설프'다고 생각하는 주체도 나비로 볼 수 있기에 이 또한 나비의 입장이 직접 제시된 부분이다. '벽이 어설프'라고 표현한 이유는, 부자연스럽고 없어져야 할 대상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벽이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나타낸다.

기(旗)여 ……

→ '기'는 깃발을 뜻한다. 문맥상 '어슬픈 표시의 벽'과 동의어이다. 서로 자기 깃발을 내세우면서, 대립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5연 : 꽃밭을 그리며 날아가는 나비

→ 전체적으로 민족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나비'의 여정에 빚대어 표현하는 우의적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다.

**[ 수능적 독해 Point ]**

- 화자 :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나비를 관찰하는 이]
- 상황 : 지친 나비를 보며, '꽃밭'에 무사히 도달하기 바라고 있음
- 정서·태도 : 분단에 대한 안타까움, 극복 의지, 평화 소망

[ 연 관 - 기 출 문 제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1.

하늘에 깔아 놓 /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體溫)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 사랑을 가식(假飾)하지 않는다.

3.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純粹)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傷)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나)

지금 저기 보이는 ㉠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  
 일을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녘 하늘은 장밋빛 무  
 니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  
**생채기**. 첫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  
 람이 자꾸 붙어간다. 목이 빠삭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

㉢ 벽,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려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날면 아방(我方)의 따스하고 슬픈 ㉣ 철조망  
 속에 안길.

이런 마지막 ㉤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  
 다 어설픈 표시의 벽. 기(旗)여……

- 박봉우, 「나비와 철조망」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에 나타난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정서적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특정한 구절을 연마다 반복하여 시에 운율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자연물에 빗대어 인간의 삶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색채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암울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새 1」에서 시인은 지상의 현실과 대비되는 천상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상징하여 존재의 이상적 상태인 순수, 즉 본질을 포착하려는 탐구열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감각적 심상과 비유를 통해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자연의 생명력과 순수를 향한 동경이 가득 차 있지만, 시인은 그것을 얻을 수 없는 현실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천상적 존재인 '새'와 지상적 존재인 '포수'가 서로 대비되어 나타나는군.
- ②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는 감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군.
- ③ '울어'와 '지어서'는 순수를 획득하기 위한 시인의 열정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군.
- ④ '포수'가 '순수를 겨냥'하는 것은 본질을 포착하려는 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겠군.
- ⑤ '매양 쏘는 것'이 '상한 새'라는 표현을 통해 현실의 한계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보여 주는군.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비에게 있어 과제의 성격을 지닌 대상이다.
- ② ㉡: 나비의 고단한 처지를 짐작하게 한다.
- ③ ㉢: 나비가 현실 극복을 위한 도전을 포기하게 한 대상이다.
- ④ ㉣: 나비가 비행하는 공간이 대립적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 나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를 상징한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국 전쟁은 민족 공동체의 이상과 인간성에 대한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한국 전쟁에서 남과 북은 같은 겨레임에도 이념의 갈등으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 이러한 민족상잔의 비극은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라설지도 모른다는 분단에 대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분단이 고착되면서 많은 사람이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 되고 혈육을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이 되었다. 한편 한국 전쟁 기간에 가해진 폭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으며 그 상처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깊었다. 이념의 갈등이 선악의 대립으로 치환되면서 개인이 지닌 삶의 의미와 고유성은 쉽게 무시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폭력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전후시는 한국 전쟁 이후 십여 년에 걸쳐 발표된 시로, 전쟁의 현장에서 전투 의욕을 고취하고 적에 대한 증오감을 부각하기 위해 창작된 전쟁시와는 구분된다. 전후시의 관심은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극복의 의지를 형상화하는 데 있다. 가령, 「나비와 철조망」은 상징적인 시어와 우의적인 표현을 통해 전쟁으로 고착되는 민족과 국토의 분단에 대한 인식과 현실 극복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초토의 시 8-적군 묘지 앞에서」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현실을 초토로 간주하면서 분단의 현실을 인식하고 전쟁의 상처를 인간성의 회복으로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나)

지금 저기 보이는 ㉠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을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녘 하늘은 장밋빛 무니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 첫 고향의 꽃밭에 마즈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미 ㉢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 간다 목이 빠삭 말라 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

벽,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날으면 아방(我方)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이런 마즈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설픈 표시의 ㉤ 벽. 기(旗)여……

- 박봉우, 「나비와 철조망」

(다)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녀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러  
그래도 양지바른 두매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녀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삼십(三十) 리면

가로막히고

**무인공산의 적막만이 / 천만군**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 북(北)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올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恩怨)의 무덤** 앞에 / 목 놓아 버린다.

- 구상, 「초토의 시 8 - 적군 묘지 앞에서」

4.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다)는 모두 청자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와 (다)는 모두 금속성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환기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문제의식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를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모습을 통해 화자의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5.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나비'의 여정이라는 우의적 표현을 통해 민족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나)는 '생채기', '피'와 같은 시어를 통해 현실 극복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전사자의 묘지를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전쟁의 참상을 환기하고 있다.
- ④ (다)는 '봄 하늘'과 '구름'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몇 <마일>'이나 '삼십 리' 등과 같은 시어를 통해 분단과 관련된 거리를 표현하고 있다.

6. (가)를 바탕으로 (나)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나비에게 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현실 극복의 장애물을 표현한 것이군.
- ② ㉡은 나비에게 강렬한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현실 극복의 염원이 담겨 있군.
- ③ ㉢이 짓을 대로 짓는다는 것은 현실 극복의 과정에서 겪는 고난을 암시하는군.
- ④ ㉣은 나비에게 재차 불어온다는 점에서 현실 극복이 어려운 과제임을 암시하는군.
- ⑤ ㉣은 나비가 지향해야 할 것발과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 극복의 조력자를 상징하는군.

7.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라는 탄식을 통해 '넋들'의 원통함을 이해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② 2연: '방아쇠를 당기던'을 '떼마저 입혔거니'로 전환하면서 전쟁에 따른 죽음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화자의 냉철한 인식을 드러낸다.
- ③ 4연: '무인공산'의 분위기와 '천만근'의 무게감을 결합하여, 전쟁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분단 현실에 대한 화자의 답답함을 암시한다.
- ④ 5연: '미움'과 '바람'의 대조를 통해, '너희'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였음을 강조한다.
- ⑤ 7연: '은원의 무덤 앞에 / 목 놓아 버'리는 인간적 행위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다.

[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

1.

[ 정답 SCAN ] ④

④ (가)는 순수의 표상인 '새'에 빗대어 본질에 대한 인간의 존재론적 탐색을 보여 주고 있고, (나)는 '나비'의 비행을 통해 분단이라는 인간의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오답 SCAN ]

- ① (가)와 (나)에는 모두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가)에는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의 경우 시간의 경과는 나타나지만 화자의 정서는 '나비'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일관되게 나타나 있으므로, 정서적 추이를 보여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가)에서 '~인 줄도 모르면서'와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하여 나타나기는 하지만 매 연마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나)의 경우 연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나)에서 '시푸런 강'과 '장밋빛 무늬로 타는' '서녘 하늘'에서 색채의 대조가 나타나지만, (가)에서는 색채의 선명한 대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2.

[ 정답 SCAN ] ③

③ '올어'와 '지어서'는 1연에서 제시된 '새'의 무의식적이고 순수한 행위와 대비된 작위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행위 자체는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행위의 주체로 상정된 것이 시인이 나 시인의 분신이 아닌, 시인이 지향하는 대상인 '새'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SCAN ]

- ① '새'는 시인이 지향하는 이상적 상태인 순수를 표상하는 것이므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날아오르는 존재라는 점에서 천상적 존재로 볼 수 있고, '포수'는 그와 반대되는 현실적 존재로서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지상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서로의 쪽지에 파묻'는 행위는 사랑을 구체적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사랑이라는 관념을 시각적 심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포수'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상한 새', 즉 순수의 훼손을 초래하지만 그 행위의 목적 자체는 '순수'를 얻기 위한 것이므로 본질을 포착하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포수는 순수를 얻기 위해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상한 새'만을 얻게 된다는 것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시키고 마는 현실의 한계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 정답 SCAN ] ③

③ 나비는 '벽'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고달픔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비행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벽'을 현실 극복을 위한 도전을 중단하게 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SCAN ]

- ① '시푸런 강'은 '산'과 더불어 나비가 '진종일을 별일 없이 보'내기 위해서 넘어야 할 대상이므로 나비에게 있어 과제 성격의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② '생채기'는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의 치열한 삶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통해 나비의 고단한 처지를 짐작할 수 있다.
- ④ '나비'는 '철조망'을 중심으로 '짜늘한 적지'에서 '아방'으로 비행하고 있으므로, 나비가 비행하는 공간은 '철조망'을 중심으로 대립적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꽃밭'은 나비가 '마지막'으로 '그리'는 대상이므로 나비의 궁극적 지향을 나타낸다.

4.

[ 정답 SCAN ] ②

② (나)에서는 '철조망', (다)에서는 '방아쇠', '포성'이라는 금속성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분단과 전쟁의 문제를 환기하고 있다.

[ 오답 SCAN ]

- ① (나)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는 방식을 찾을 수 없으며, (다)에서는 '너희'라는 용어로 청자를 지칭하지만 호명하는 방식으로 볼 수 없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다.
- ④ (나)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찾을 수 없으며, (다)에서는 정서 변화를 감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공감각적 이미지를 찾을 수 없다.
- ⑤ (나)와 (다)가 그리고 있는 것은 전쟁과 분단의 상처와 극복의 모색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5.

**[ 정답 SCAN ] ④**

④ (가)에 따르면 전후시가 그리는 것 중 하나가 전쟁과 분단의 상처인데 (다)에서는 ‘봄 하늘’과 ‘구름’이 초토의 현실과 대비되면서 분단의 아픔을 부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봄 하늘’과 ‘구름’이 대립 구도를 이루면서 전쟁의 상처를 부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SCAN ]**

- ① (가)에 따르면 (나)는 우의적 표현을 통해 전쟁으로 고착되는 분단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때 우의적 표현은 ‘나비’의 여정을 가리킨다.
- ② (가)에 따르면 (나)는 분단에 대한 인식과 현실 극복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해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는데, (나)에 쓰인 ‘생채기’, ‘피’는 현실 극복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 ③ (가)에 따르면 (다)는 초토의 공간들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환기하는데,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전사자들이 묻힌 묘지이다.
- ⑤ (가)에 따르면 (나)와 (다)는 전쟁으로 고착되는 분단의 아픔을 그리는데, (나)에서는 ‘몇 <마일>’을 통해 분단의 거리를, (다)에서는 ‘삼십 리’라는 시어를 통해 분단된 곳까지의 거리를 표현하고 있다.

6.

**[ 정답 SCAN ] ⑥**

⑤ (가)에 따르면 (나)는 분단의 인식과 현실 극복의 모색을 그린 시로, ‘벽’은 여정의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자 어설픈 표시라는 점에서 분단이라는 현실의 문제 또는 분단의 허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벽’을 현실 극복의 조력자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SCAN ]**

- ① ‘시푸런 강과 또 산’은 ‘별일 없이 보’내기 위해 ‘나비’가 넘어야만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현실 극복의 장애물을 표현한 것이다.
- ② ‘첫 고향의 꽃밭’은 향기와 맞물려 강렬히 바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현실 극복의 염원을 끌어낸다.
- ③ ‘날개’는 여정이 계속될수록 지치고 져는다는 점에서 현실 극복의 과정에서 겪는 고난을 암시한다.
- ④ ‘바람’은 ‘나비’의 여정에서 거듭 불어오는 모질고 시린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 극복이 어려운 과제임을 암시한다.

7.

**[ 정답 SCAN ] ②**

② ‘방아쇠를 당기던’을 ‘떼마저 입혔거니’로 전환하는 것은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적군이지만 그의 죽음은 추모하려는 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화자의 냉철한 인식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SCAN ]**

- ① 1연에서 화자는 묘지를 보며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라고 탄식하는데, 이는 전사자들의 원통함을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 ③ 4연에서 화자는 ‘무인공산’의 적막에서 ‘천만군’의 무게감을 느끼는데, 이는 전쟁의 폭력으로 피폐해진 분단 현실에 대해 답답해하는 모습이다.
- ④ 5연에서 화자는 살아서는 ‘미움’으로 맺힌 인연이 죽어서는 ‘바람’으로 연결되었음을 고백하는데, 이러한 대조에서 ‘너희’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⑤ 7연에서 화자는 ‘은원의 무덤 앞에 / 목 놓아 버’리는데, 이러한 행위에서 인간성의 회복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